

광주, 수능 국·영·수 모두 전국 1~3위

표준점수 국어B, 수학B, 영어A·B 전국 1위
남구 전과목 '톱10'...동구 실력 향상 두드러져

2014 수능 성적분석 결과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10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영어의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2013년11월7일 시행)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수험생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국어·영어·수학 모두 1~3위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전체 학생의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A형 102.5점(3위), 국어B형 101.7점(1위), 수학A형 103.1점(2위), 수학B형 104.9점(1위), 영어A형 106.2점(1위), 영어B형 105.5점(1위)으로 전국 평균보다 최대 6.8점이 높았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영어 성적이 크게 올랐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최상위권인 영역별 1등급 비율은 지난해 3위권에서 올해 2위권으로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1등급 비율은 A형 4.4%, B형 4.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대구·서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수학A형(4.3%)도 서울·제주·전북에 이어 4위였고, 수학B형(5.0%)은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영어 A형(5.8%)과 B형(4.4%)은 각각 제주와 서울에 이어 2위를 올랐다.

최근 3년간 1등급 순위를 보면 국어(A·B)와 수학A형(문과)은 5→3→4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갔다. 수학B형(이과)은 2→3→2위로 올랐고, 영어는 5→4→2위로 2계단 상승했다.

광주는 수능 성적이 공개된 2005년 이후 7년 연속 수능 1등급 비율이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1~2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2년 5위권으로 추락했다. 지난해에는 3위권으로 다소 회복했고, 올해 영어 실력 향

■ '수능 광주' 압도적 실력

순위	과목
1위	국어B, 수학B, 영어A, 영어B
2위	수학A
3위	국어A

<표준점수기준, 전국 17개 시군>

상에 힘입어 최상위권으로 복귀하는데 성공했다.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합한 경우에는 국어A형 12.3%(3위), 국어B형 11.6%(3위), 수학A형 11.6%(2위), 수학B형 14.2%(3위), 영어A형 17.7%(2위), 영어B형 12.8%(2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국어는 1계단 내려갔고 영어는 2계단 올라 최상위권을 형성했다. 중위권으로 분류된 1~4등급 비율은 국어A형 44.6%(4위), 국어B형 40.7%(2위), 수학A형 47.9%(2위), 수학B형 50.7%(1위), 영어A형 54.4%(2위), 영어B형 52.8%(1위)로 나타났다.

김용배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수능일에 앞서 영어 읽기·듣기 영역의 평가문항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영어 독서마라톤 개최, 영어 선도학교 운영, 영어교사 핀란드 직무연수 등 집중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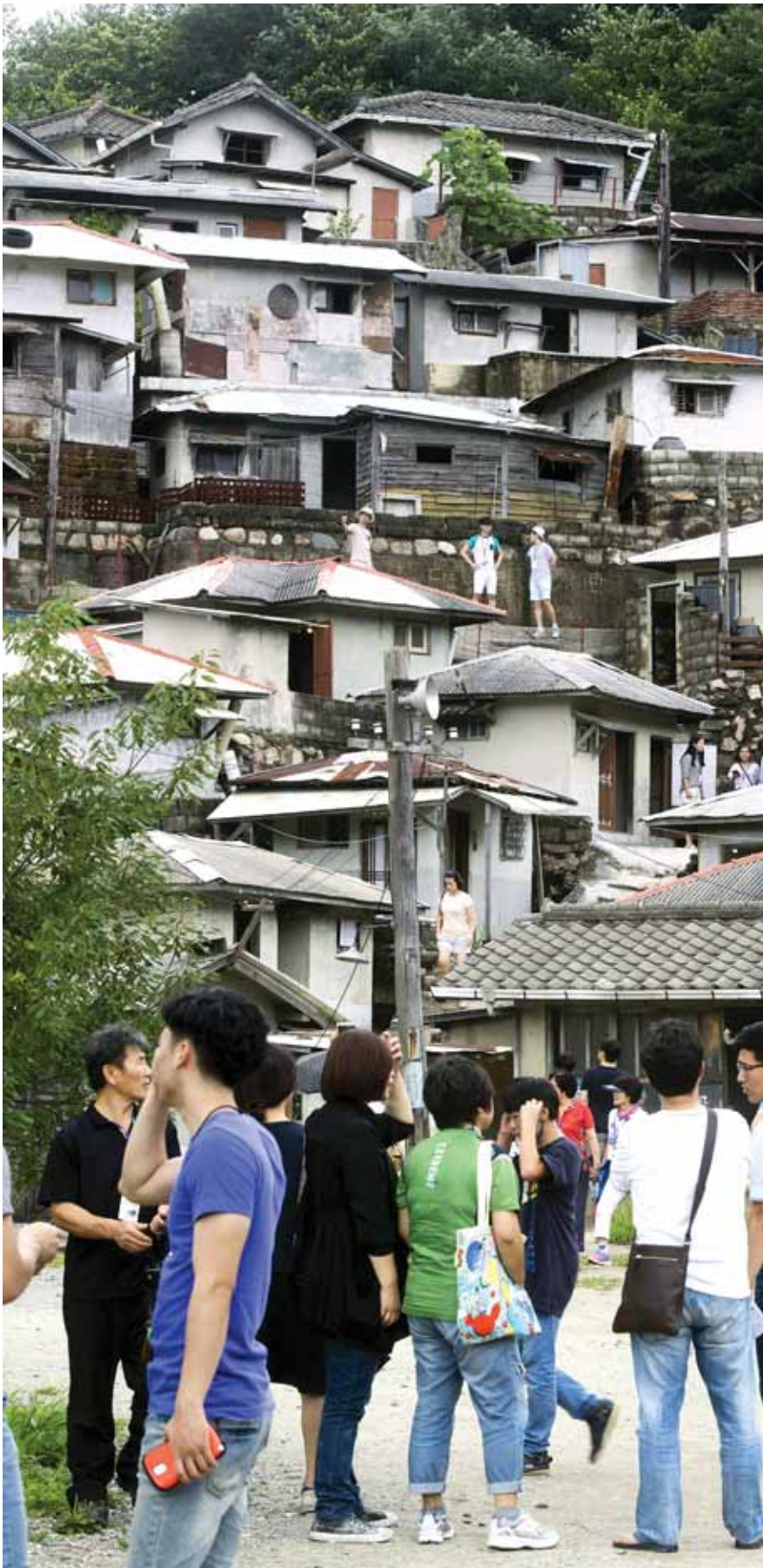
전남지역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A형 97.6점, 국어B형 96.7점, 수학A형 98.0점, 수학B형 91.6점, 영어A형 99.6점, 영어B형 93.5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수능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서는 장성군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다. 장성군은 국어A형 1위, 국어B·수학A·영어B 2위, 수학B 3위로 전국 랭킹 3위에 들었다.

광주는 동구의 실력 향상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30위권에 하나도 들지 못했던 동구는 올해 국어A·수학B·영어A·영어B 등 4개 영역에서 30위권에 포함됐다.

광주 남구는 올해도 모든 영역에서 30위권에 포함, '실력 광주'를 견인했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량' 흥행 열풍에 주목받는 전남 드라마세트장

영화 '명량'의 열풍으로 남도의 드라마세트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이 21일 전남도와 전남영상위원회 주최의 팸투어에 참가해 순천 조례동 드라마세트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들은 2박 3일동안 보성 태백산맥 문화관과 고흥 소록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억 요우커 유치하려면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중국인 관광객>



왕시엔민 광주 총영사 제안

1억명이 넘는 중국인 해외관광객을 광주·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민선 6기 광주·전남 중국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호남대 관광산책퍼스에서 열린 2014년 한중수교 2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왕 시엔민 주한 광주 중국총영사는 기초강연을 통해 호남만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왕 총영사는 "현재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지명도가 높은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면서 "호남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호남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의 문화산업과 전남의 청정해역을 비롯한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관광자원"이라며 "호남지역이 문화관광, 해양

레저, 문화산업, 해수양식 등의 분야에서 공을 들이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왕 총영사는 아울러 광주와 전남이 대 중국 홍보 강화를 통해 지명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투자환경이 좋더라도 외부에 알리지 못한다면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내 투자설명회와 관광 홍보회를 통해 호남의 인문역사, 관광자원, 산업우세를 맞춤형 있게 홍보를 펼치고, 중국 여행사는 물론 유명 매체, 인터넷 명사 등을 호남지역으로 초대해 그들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호남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에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행사들을 계기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날 열린 한중수교 2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는 광주일보사와(사)한중관광문화포럼, 전남발전연구원, 호남대학교, 한국형복합리조트인재양성사업단 주최로 열렸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700만명 개인정보 2억건 털렸다

경찰 6명 구속 국민 72% 피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2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내 대졸사기범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6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유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24)씨와 전문 해커 한모(2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해커와 대리점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에게 판매·유통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의 전문 해커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0만~100만원을 받고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대규모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한 건 당 1만~2만 원을 주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비롯해 금융계좌번호, 이메일까지 2억 2450만건의 개인정보를 해킹했으며 피해자는 2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2014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8월 18일(월)~25일(일)
입학문의 062)605-1115, 1021
광신대학교

김희중 대주교 인터뷰
교황 방한 의미와 한국사회 과제 ▶3면
무등산 정상에 등산로?
軍, 개방 대신 제단·市 "수용 불가" ▶6면

NEW
수분감신기능성
사용약이함안면

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나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올늘피부-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방향 한울 올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우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인체 실험 결과: 건조 피부 수분함량 증대 효과

맑고 생생한 올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나빠져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99%	4. 피부가 건조함을 덜어준다	99%
5. 단단해져서 탄력 있게 느껴진다	98%		

*인체 실험 결과: 건조 피부 수분함량 증대 효과 (n=30명, 4주, 20°C~25°C, 50%~60%RH)